

해외 어학연수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이 기 정

한양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국제어학원 연구실장



1. 머리말

우리나라 국민성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는 지나친 목표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목표를 정하고 나면 그 목표를 향하여 저돌적으로 매진한다. 이러한 목표지향적인 방식은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중간의 과정들을 무시하거나,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를 소홀히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문민정부에 들어와 한동안 세계화, 국제화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처음부터 그 말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세계화하고 국제화하여야 하는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국제화되고 세계화되는 것은 그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심지어 토익 점수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향하여 무작정 매진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어린아이에게 영어로 부른 자장가를 틀어주어 잠을 재우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보모를 고용한다.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은 기본이고, 온갖 수단을 다하여 자녀들을 외국인 학교에 보내려고 하기도 한다. 주말이면 많은 어린아이들이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려고 기를 쓴다. 영어가 인생의

선택적 도구 중의 하나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근자에 들어서 대학가에 해외 어학연수의 열풍이 불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일단 대학에 들어오면 해외 어학연수라는 목표를 정하여 이를 맹목적으로 추진한다. 어학연수에 대한 필요성이나 300~400만원에 이르는 경비에 대한 생각은 다음 문제이다. 과연 이러한 막대한 경비와 시간을 투자하는 해외 어학연수가 효과적인가?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목표지향성의 해외 어학연수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해외 어학연수와 관련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여 한양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해외 어학연수의 문제점

요즈음 새학기가 되면 많은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학생들과 면담할 때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해외 어학연수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 통계에 따르면, 어느 여자 대학에서 해외 어학연수로 휴학한 학생이 '95년 2학기에 468명, '96년 1학기에 639명, 그리고 '96년 2학기에는 약 1,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많은 대학들의 사정도 비슷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영어실력을 인간에 대한 유일한 평가자대로 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토익 점수가 얼마나에 따라서 혹은 얼마나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가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보다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

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즉,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은 뒷전이고 취직에 대비한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 없이 떠나는 해외 어학연수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야기하고 있다.

첫째, 엄청난 무역적자와 경기 불안으로 인한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일인당 한 달에 3,000~4,000달러에 이르는 외화 낭비를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둘째, 어학연수생 개인의 성실성 문제이다. 지난해 필자가 방문했던 대학은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온 학생들이 제일 많은 곳이었는데, 그 대학의 한 교수의 말은 한국 학생들의 출석률이 제일 저조하다는 것이다. 많은 비용을 들여 영어 구사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어학연수를 떠난 학생들이 무절제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셋째, 다수의 학생들이 음주, 흡연, 도박, 심지어 마약이나 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넷째, 공신력이 없는 유학 알선 업체의 소개로 어학연수를 떠난 학생들은 현지에서 식비나 주말 활동비 등 추가 경비를 지불해야 하므로 많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다섯째, 현지 대학교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 사실 어학원은 프로그램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운영비를 줄이기 위하여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을 강사로 고용하여 가르치는 곳도 있다. 여섯째, 몇몇 프로그램은 주로 한국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한 반 15명 중에 12~13명이 한국 학생이고, 나머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 학생들끼리 한국어로 대화를 하여 해외 연수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기도 한다.

3. 해외 어학연수의 발전적 대안

급변하는 시대에 당당한 세계인으로 말은 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의 수단인 세계어에 익숙해야 한다. 그런데 3,000개 이상의 세계 언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영어이고, 국제 무대에서 의사소통의 85% 이상이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과연 해외 어학연수를 마치면 영어 실력이 향상될까? 물론 해외로 나가서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며 영어를 익히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해외 어학연수가 갖는 장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어는 문화의 산물이다. 따라서 해당 문화의 체험은 어학 학습의 효과를 배가시킨다. 둘째, 단기간에 걸친 해외 어학연수로 엄청난 실력이 향상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 어학연수를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셋째, 그 동안 자신의 영어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었는가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된다. 따라서 귀국 후 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여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해외 어학연수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으로 대학내 어학교육과 해외 어학연수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교내 어학교육과 연계된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한양대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규 교과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실용영어위원회'에서 운영하는 HELP 2000(Hanyang English Language Program 2000)과, 비정규 어학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국제어학원'에서 운영하는 ILP(Intensive Language Program)가 있다.

HELP 2000은 국내 최초로 문법 중심의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실용적인 의사소통 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고, 영어회화 전용 강의실을 만들었으며, 원어민 30명을 초빙하여 직접 대화를 통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어학원에서 실시하는 ILP는 캐나다에서 가장 우수한 어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빅토리아 대학교(University of Victoria)와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10주를 한 학기로 하여 1년에 4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 실과 화상회의실을 설치하고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어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빅토리아 대학교에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풍부한 교육 경력을 가진 교수 5명을 한양대에 파견하여 어학원에서 ILP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 ILP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 중에 40명 정도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각각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빅토리아 대학에 보낸다. 빅토리아 대학측에서도 풍부한 장학 혜택과 학비 할인을 해주어서 학생들이 적은 경비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다. 특히 한양대에서 교육받은 내용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현지에서 교육을

받게 되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동질의 교육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빅토리아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마치면, 학생들의 출석 상태와 성적에 따라서 한양대에서는 계절학기 학점으로 3 학점을 인정하여 준다. 따라서 학생들이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려는 동기유발의 효과가 생긴다.

2) 교환학생 제도의 활성화

한양대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 어학연수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교의 학생교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해 학기초에 약 50여 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중국, 대만,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 어학연수는 물론 전공과목을 이수하게 한다. 대학간의 협정에 따라 학생들은 학비를 면제받으므로 많은 경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연수 대학에서 받은 학점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현지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이 해외에 있는 여러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 이러한 교환학생 제도를 활성화하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외화를 절약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

4. 맺음말

각 대학은 국제교육과 국제교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최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켜서 교육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능동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시장 개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열병처럼 번지고 있는 해외 어학연수에 대하여서도 각 대학은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대학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교내 어학교육과 연계된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자매결연 대학에 학생들을 파견하면 많은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양질의 어학연수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자매대학에서 이수한 어학연수 학점을 인정한다면 현지에서 학생들이 보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이기정 /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국제협력처 부처장과 국제어학원 연구실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Topics in Phonological Representation"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6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과서 및 중학교 교과서가 있다.